

이재명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 더 효과”

전주 토론회... “어린이·신생아·농어민·장애인·노인 등 2800만명에게 28조원을 연 100만원 지역 상품권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28조원이 대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8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공약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청년 이하 어린이와 신생아, 농어민, 장애인, 노인들 2800만명에게 연 100만원씩 28조원을 지급하되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전북만 해도 1조6000억원 정도가 매년 시장에 풀리면서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또 “2800만명에게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니 대상이 갑자기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복지에 돈을 쓰는 게 기업 R&D나 토목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보다 투자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국민에 설득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열린 만큼 ‘전북 홀대론’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 시장은 “어떻게 호남 민심을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호남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말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며 “호남이 갖고 있는 ‘국난 극복’과 ‘저항’의 역사적 자부심과 정신에 부흥할 수 있는 노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는 전라도 출신 장차관이 없을 정도로 지역 편중이 심하고, 인사에서 전북 홀대를 타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는 능력을 중시하고 내 편, 내 편 하지 말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남시장 하면서 실력에 따라서 사람을 쓰고 신상발벌 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며 일했더니 공무원들이 빠르게 적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8일 전주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지방세수에서 지방의 몫은 20% 정도에 불과한데, 30~4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방의 재정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저는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을 했었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규제와 꼬리 붙여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을 정해서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소수 정당이므로 정책을 시행할 때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문제는 그렇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새누리당 등은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청산대상인데, 이들과의 대연정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시장은 전주 토론회를 전후해 대전서는 수도권 지지자들과, 전주서는 호남권 지지자들과 서포터즈 모임을 갖고 경선승리를 다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춘석·유성엽 의원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을 수상했다.



이춘석 의원

17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이춘석 의원은 의정활동공로 부문 ‘국정감사 의정혁신 공로대상’에 유성엽 의원은 ‘지역사회복지봉사공로대상’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유성엽 의원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의인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등이 주관한 본 상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부문과 일반기업 및 공직 부문 등에서 평소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래 올해로 10년째 베테랑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오랜 법사위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9년간 법사위의 주요기관들이 정치화, 관료화된 점을 고발한 3권의 자료집을 펴내 국회 인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의 출범과 함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돼 3선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특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전초전 역할을 한 셈”이라며, “다시는 특정한 절대 권력에 의해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유성엽 의원은 “국가의 교육과 문화예술 등을 관장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항상 정도를 걸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 교육 개혁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완수 도의회 문건위장 외국인전용·순환 관광버스 개선 촉구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이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태마가 있는 전라북도 관광버스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관광버스와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전주 외국인전용 관광버스는 지난해 총 160회 운행에 4,669명의 외국인이 이용했고 2억4,700만원이 집행됐다.

회당 운행비로 환산하면 154만원으로, 1억9,000만원이 투자된 전북순환관광버스(286회 운행, 8,940명 이용)의 회당 운행비 66만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외국인전용 관광버스는 당일치기 운행코스도 오히려 외국인여행객의 지역방문을 당일치기로 유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숙박일정이 포함된 체류형 관광상품과 버스 운행 프로그램의 연계 없이는 사업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취지로 도입된 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한완수 위원장은 전북순환관광버스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버스 내·외관을 특색 있게 개선하는 ‘명품 관광버스화’ 사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국회-박측 총력전 전망

‘각자 입장 뒷받침하는 의견서 등 통해 치열한 주장 펼칠 것’ 관측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회 소추위원회와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재판부 ‘실증 끝내기’ 작업 등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증인이 현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심판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보다 효과적인 의견서 등을 통한 물밑 전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현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과 22일 증인신문에 이어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다.

20일에는 최상목(54)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증인신문은 방 전 행정관에 대해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 전 비서관은 공무원 해의 출장을 이유로,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현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방 전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예정된 20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22일에는 앞서 지난달 16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를 상대로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앞으로 남은 세 번의 변론보다는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 등을 통해 치열한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단 20일 열리는 증인신문은 김 전 실

장이 빠져 사실상 맥이 풀렸다. 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이 이뤄진 안 전 수석과 최씨로부터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2일 변론도 앞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정에서 증인을 통한 증언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서 등 준비서류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양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주장하거나 이를 방어하는 사실관계를 최종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 주장에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이동흡 전 현재재판관과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유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행복한 교사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육지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